

금융지주회사 규제완화

- 일본 금융청은 은행그룹들이 은행업에 관련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할 방침임
- 이는 1998년 금융 빅뱅으로 해금된 금융지주회사의 운용 틀을 금융·IT의 융합이라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크게 바꿈으로써, 일본 금융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

□ 은행의 사업범위 확대

- 일본 금융청은 은행업의 서비스 향상과 성장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
 - 지주회사 산하에 둘 수 있는 사업회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 그룹이 전자상거래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결제서비스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완화의 핵심임
 - 이에 따라 1998년 금융 빅뱅으로 해금된 금융지주회사의 틀이 크게 바뀌게 됨
- 일본 금융청은 3월 3일 금융지주회사 운용에 관한 금융심의회(총리 자문기관)의 총회를 개최
 - 금융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를 발족시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고 2016년 정기국회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계획
 - 금융청은 지주회사의 경영·리스크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조건으로, 은행 그룹이 은행업에 관련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

□ 일본의 금융지주회사 현황

- 일본의 금융지주회사는 은행과 증권회사, 보험회사가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다른 업태의 금융기관을 총괄하는 것이 가능함

- 금융지주회사는 산하 금융기관을 공통된 경영전략에 기초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,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독금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으나 1998년 금융 빅뱅으로 해금됨

〈표〉 일본의 주요 금융지주회사

주된 업태	사 례
은행	미쯔비시UFJ, 미쯔이스미토모FG, 미즈호FG
증권	노무라HD, 다이와
손해보험	동경해상, MS&AD, 손해보험저팬일본흥아HD
생명보험	T&D
지방은행	후쿠오카FG, 야마구치FG

- 일본 국내 대형은행·증권회사는 미쯔비시 UFJ파이낸셜그룹과 미쯔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,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등 3개 메가뱅크와 노무라홀딩스 등이 지주회사로 이행
- 특히 메가뱅크 그룹들은 은행, 증권 외에 리스회사와 카드사 등 비은행금융기관들도 산하에 두고 일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, 산하에 사업회사를 두는 데는 제한이 있음
- 최근에는 지방은행의 재편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
- 2014년 가을 경영통합을 발표한 요코하마은행과 동일본은행, 히고(肥後)은행과 가고시마은행은 모두 공동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임
- 후쿠오카 파이낸셜그룹과 같이 산하에 3개의 지방은행을 둔 그룹도 등장
- 지방은행 업계에서는 현재 다수의 은행을 산하에 두는 지주회사가 9개(설립예정 포함)나 있음

□ 규제완화의 배경

① 금융업의 환경변화 : 금융·IT 융합

- 일본 금융청이 제도 개정에 착수한 배경은 금융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임
- 2000년 이후 IT의 급속한 발전과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에서는 미국의 페이팔과 중국의 알리바바 등 은행 이외의 사업자들에 의한 결제서비스가 보급되고 있음
- 미국 JP모건체이스가 IT벤처에 출자하는 등 금융과 IT융합이 진행

- 금융청이 특히 참고로 하는 것은 미국의 금융지주회사(FHC)제도임
 - 미국에서는 FHC 자격을 미국연방준비위원회로부터 취득하게 되면, 은행업을 보완하는 업무를 인정해주고 있음
 - 무엇을 인가하는가는 FRB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임
 - 일본 금융청도 은행이 과대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본업과 관계없는 분야에 대한 출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

② 구미에 비하여 높은 은행 규제

- 이번 금융규제완화는 은행에 대한 규제를 풀어 일본은행들의 국제경쟁력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음
 - 미국의 시티그룹과 JP모건체이스가 벤처기업의 매수 등 금융과 IT사업을 결합시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, 일본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과잉규제를 받고 있어 국제경쟁에서 불리하게 될지 모른다는 인식이 확산
 - 2014년 발생한 가상통화 비트코인 소동으로 은행을 개입하지 않은 신흥서비스의 위험도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, 이러한 분야에 대형 은행그룹이 진출할 수 있게 되면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나 체제를 만들기 쉬울 것이라는 기대도 있음

② 다른 업종에 비하여 높은 은행 규제

- 일본 금융청이 1998년 금융 빅뱅 이후 근본적인 규제완화에 착수한 것은 IT와 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상에 대응한 위기감 때문임
 - 異업종기업들이 쉽게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데 비하여, 은행에는 제약이 너무 많다는 인식임
 - 이른바 핀테크(Fin Tech)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금융과 IT의 융합, 인터넷을 활용한 결제 및 자금조달이 확대일로에 있어 금융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
 - 현재 그 주된 담당자는 라쿠텐(樂天)과 야후 등 IT 관련 기업으로, 1990년대 규제완화로異업종이 금융업에 참여하기가 쉽게 된 성과라고도 할 수 있음
 - 반면, 은행의 산업지배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은행의異업종 참여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

- 아마존저팬이 자사의 가상쇼핑몰에 입점하는 기업들에 용자할 수 있어도 은행이 고객을 모아 가상 물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
- IT관련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평등하다는 소리가 금융계에 확산

□ 다른 기대효과

- IT벤처기업과 공동출자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,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하기가 용이해 지고, 소비자들로서는 선택지가 그만큼 확대되고 수수료 인하 등을 기대할 수 있음
- 금융규제완화가 기대하는 또 하나의 효과는 은행의 그룹경영 효율화임
 - 별도로 되어 있는 국채 등 자금운용을 자회사에 집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은행에서 진전되는 경영통합 효과를 높이게 됨
 - 지방은행은 은행명이 바뀌는 은행 본래의 통합은 어려우나, 자금운용 등 중복된 업무만을 그룹 내에서 재편할 수 있게 되면 통합효과를 발휘하기가 쉽게 됨
 - 일본은 1998년 금융 빅뱅으로 금융지주회사를 해금한 후도 자회사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은행과 증권회사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왔음

□ 시사점

- 이번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의 핵심은 일본 금융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임
- 이를 위해 구미에 비하여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일본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 줌으로써 구미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게 하는 한편, 사업가능 영역에 대한 이업종과의 형평성을 도모
- 특히 오늘날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 산업에 IT의 접목이 필수적인 바, 은행들에게 이것이 가능하도록 했음
- 이번 일본의 금융규제완화가 국내외 잠재적 경쟁자를 포함한 경쟁상대에 대한 은행의 포지션을 높여줌으로써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,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, 경영통합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됨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5.2.25, 3.4)